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0
2024. 12



전라남도
영광 송이도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0
2024. 12



전라남도
영광 송이도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CONTENTS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옷

섬 단어 사전

03 풀등

PHOTO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4 맛등을 걷고 몽돌 해변에 서다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06 일상이 여행이 되는 곳, 송이도의 매력 속으로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08 1월부터 12월까지,
송이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0 365일 여행객을 환영하는 이모
- 대은희 님

13 서로 의지하며 발농사로 섬 살이 하는 부부
- 김성기·김정자 님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16 영광 송이도 투어가이드 : 교통 및 숙박 정보

18 송이도에 가면, 이곳은 꼭 만나야 해!

20 와우! 세상에! 감사해요. 맛등 체험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 드려요

22 이달의 주요 섬 뉴스



전라남도 공식 유튜브
'오펜튜브'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섬,
송이도' 랜선여행 바로가기

섬 단어 사전

풀등

평소에는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썰물 때만 드러나는 널따란 모래사장이다. 송이도에서는 '맛등'이라고 하는데, 송이도와 대소각이도 사이에 있다. 언뜻 펄 갯벌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펄이 섞인 모래평원이다. 맨발로 걸어 들어가도 빠지지 않는 모래밭. 인천 대이작도 풀등보다는 모래에 펄이 많이 섞여 있지만 넓이는 그에 못지않다. 과거에는 이 맛등 때문에 조난사고도 잦았다. 맛등은 송이도의 특산물인 동백하, 새우의 산란장이기도 하다. 겨울에는 맛조개와 대합이 많이 나는 조개밭이기도 하다. 맛등에는 한때 지주식 김 양식장을 했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더 이상 김발을 하지 않는 맛등에는 잘려나간 말뚝들이 촘촘히 박혀서 옛 시절을 증언한다. 풀등에서는 백합과 바지락과 맛조개를 직접 캐는 체험도 가능하다.

- 강제윤, 백섬백길 홈페이지(100seom.com/trail) 송이도 둘레길 소개글에서

도움 주신 분

- 대은희 주민
- 김성기, 김정자 부부
- 전다혜 영광군 주무관

발 행 처

-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 에디터 김신연 (fun1015@korea.kr)

전남 섬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가고 싶은 섬 소식이 궁금하다면?

시웃 구독을 하고 싶다면?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맛등을 걷고
몽돌 해변에
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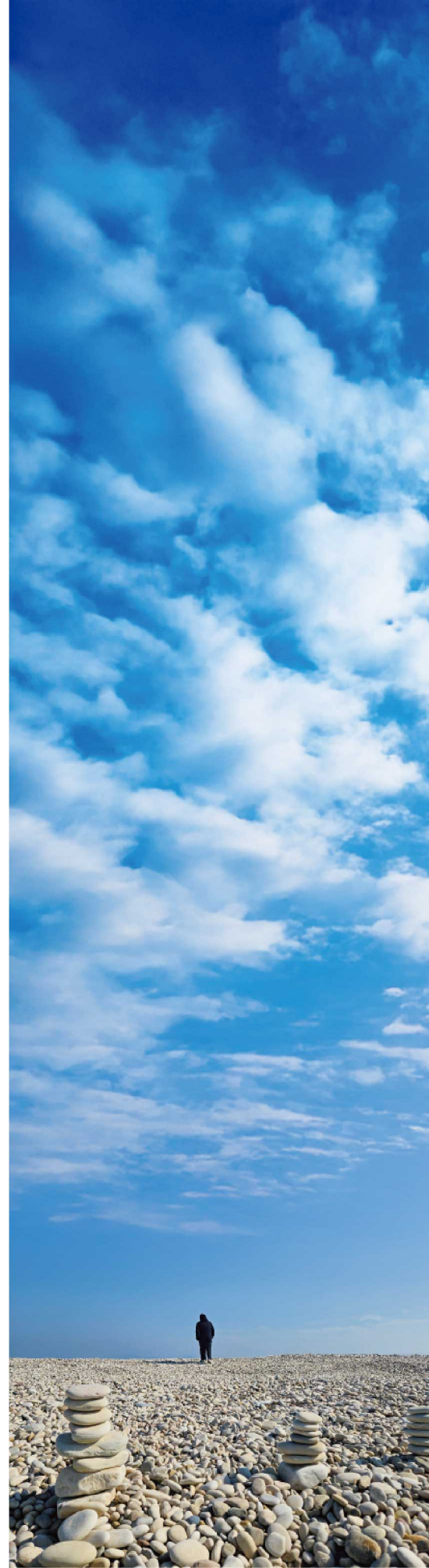
▲ 송이도 도착을 알리는 환영 표지석

송이도(松耳島)는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에 위치한 섬으로 면적 약 4.44km²에 이르는 낙월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소나무가 가득한 풍경과 사람의 귀를 닮은 독특한 섬의 형태는 이름 그대로 자연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조화를 이룹니다. 송이도의 아름다운 풍경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이야기를 간직한 곳입니다.

섬 남쪽에 자리한 몽돌 해변은 송이도를 대표하는 독특한 풍경 중 하나입니다. 약 1km 길이로 이어진 해변은 오랜 세월 파도가 빚어낸 동글동글한 조약돌로 가득합니다. 몽돌 위를 걷는 발걸음마다 들리는 돌의 속삭임과 부드러운 파도 소리는 도시에서 벗어난 완벽한 힐링을 선물합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까지 더해지면,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얀 몽돌 해변 위, 여행자들의 마음이 쌓여간 흔적 ▶





▲ 신비로운 바닷길로 안내하는 맛등 입구의 포토존

파도와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기다리는 곳,

송이도 여행 떠나보시겠어요?

송이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맛등에서 시작되는 바닷길입니다. 음력 초승달과 그믐달 무렵, 물이 빠지면서 맛등에서 각이도까지 이어지는 신비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 길은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며, 자연이 허락한 특별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바닷길 위를 걷는 순간은 그 자체로 설렘과 감동을 안겨줍니다. 발끝 아래로 보이는 바다 생명체들과 수면 위로 반사되는 햇살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이 섬은 청정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며, 바다와 숲이 함께 어우러져 여행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물합니다.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온전히 느끼며 섬을 걷다 보면, 일상의 피로가 씻겨 나가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송이도는 파도와 몽돌,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섬입니다. 섬을 걷다 보면 자연의 경이로움뿐 아니라, 섬사람들의 소박한 삶이 녹아든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기는 풍경은 바다와 하늘, 그리고 섬사람들의 삶을 투영하며 소박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섬사람들의 인심이 하나로 어우러진 송이도는, 당신에게 평화롭고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하얀 몽돌 해변에서 자연의 속삭임을 듣고, 맛등의 바닷길에서 신비로운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LIFE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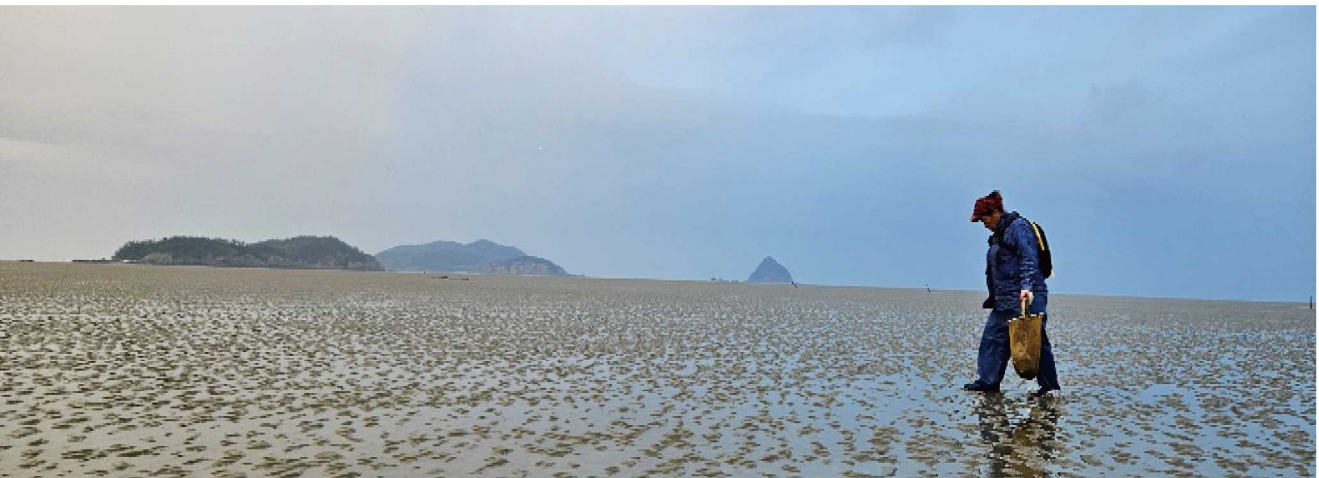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일상이 여행이 되는 곳, 송이도의 매력 속으로



▲ 향화도선착장을 출발하여 송이항선착장으로 향하는 여객선 안

송이도에서의 하루는 송이항선착장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이 되면 항구에는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과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작은 배가 잔잔한 물살을 가르며 떠나고, 섬으로 들어오는 배는 새로운 하루의 설렘을 안고 항구에 닿습니다. 송이도항은 섬의 일상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자,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공간입니다.



▲ 새벽 빛 속, 맛조개를 찾는 섬의 일상

갯벌,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

물이 빠지는 갯벌은 송이도 주민들에게 생업의 터전이자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갯벌에 들어서면 짭짤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주민들은 맛조개와 동죽을 캐기 위해 흙 속을 파헤치고, 조용히 숨어 있는 자연의 선물을 찾아냅니다. 손으로 조개를 캐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그 속에는 자연에 대한 감사함과 소소한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갯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는 섬이 가진 따뜻한 정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밭에서 이어지는 삶의 흐름

갯벌에서 돌아온 주민들은 작은 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송이도의 밭은 크지 않지만, 그 안에서 자라는 작물들은 섬 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귀중한 보물입니다. 고추, 마늘, 고구마 같은 작물은 섬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주민들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합니다. 흙을 만지고, 작은 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섬 주민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느낍니다. 힘든 순간도 있지만, 수확의 기쁨은 모든 노력을 보상해줍니다. 밭에서 나온 작물은 이웃과 나누기도 하고, 여행객들에게 소개되기도 하며, 섬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 섬의 건강을 책임지는 송이도의 농작물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정



▲ 노인일자리 활동 후 잠시의 여유를 즐기는 주민들

송이도에서의 일상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도우며, 마을 곳곳에서 정겨운 인사를 나눕니다. 갯벌에서 잡은 해산물을 나누거나 밭에서 키운 작물을 함께 먹는 일상은 송이도 주민들에게는 당연한 풍경입니다. 누군가 힘든 날이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며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섬 주민들에게 송이도는 현재를 살아가는 삶터이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우주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정은 이 섬이 가진 가장 큰 보물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녁이 되면 송이도는 고요한 평화 속으로 물듭니다. 주민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따뜻한 식사와 대화를 함께 나누며 섬의 하루를 정겹게 마무리합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는 섬 주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하루의 피로를 감싸는 자장가가 됩니다.

송이도의 삶은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행복이 숨 쉬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소소한 일상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송이도의 하루는 이 섬이 가진 가장 큰 매력입니다. 송이도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빛나며, 마음 깊이 여운을 남기는 특별한 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이도에서의 하루, 어떠신가요?



▲ 맞닿에서 마주한 황홀한 노을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송이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바다

6월 - 8월	농어, 민어
4월 - 6월 10일 8월 21일 - 10월	꽃게
* 금어기 6월 21일 - 8월 20일까지	
3월 - 5월	돌게, 소라
4월 - 6월	백합
11월 - 3월	맛조개
4 - 5월	동죽
12월~2월	낙지

농작물

6월~9월	고추
6월~7월	마늘, 양파
11월	배추
11월	무
9월~10월	고구마
7월~9월	호박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365일 여행객을 환영하는 이모 대은희 주민



Q1 · 송이도에서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1 송이도는 제 고향입니다. 저는 2011년에 다시 송이도로 돌아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목포로 이사를 갔고, 결혼 후에는 광주에서 살며 도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친언니가 송이도에서 살고 싶다고 했고, 저도 자연 속에서 건강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언니와 함께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헌집을 구입해 직접 수리했고, 친엄마까지 함께하며 셋이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바람 소리,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보낸 그 시절은 저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었죠.

송이도로 돌아온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바쁘고 답답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다시 숨을 고르며,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이후 2013년에는 아들이 송이도 섬 펜션 식당을 구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자연의 품속에서 일상을 보내는 건 저에게 더없이 큰 행복입니다. 송이도는 단순히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특별한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Q2 · 섬에서 여행객을 맞이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2 송이도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저에겐 소중한입니다. 섬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각자만의 이야기와 특별한 에너지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즐거움이 있어요. 여행객들이 송이도의 자연을 감탄하며 좋아하시고,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방송 촬영팀이 송이도를 방문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섬이 활기를 띠고, 저 역시 더 신이 나서 손님들을 맞이했죠. 촬영팀이 왔던 날의 분주함과 즐거움은 아직도 생생 합니다. 손님들이 송이도의 풍경과 매력에 감탄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섬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겐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 방송정보: 2021. 12. 8. SBS 생방송투데이
- 슈퍼 사이즈! 크기부터 남다른 송이도 '맛조개'동축'

Q3· 송이도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장소와 체험은 무엇인가요?

A3· 송이도를 방문하신다면 꼭 맛등에서 조개 잡는 체험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물이 빠진 갯벌에 들어가 조개를 캐는 경험은 마치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특별한 시간이지요. 특히 백합과 동죽은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입니다. 맛조개는 조금 더 전문적인 도구가 필요하지만, 오시기 전에 숙소나 어민분들께 문의하시면 신선한 맛조개를 잡는 체험도 가능하실 거예요. 손으로 직접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그 순간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송이도라는 섬이 가진 자연의 선물과 풍요로움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송이도의 숨은 보물 같은 장소인 큰내끼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이곳은 송이도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특히 큰내끼의 신비로운 동굴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경관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자연의 평화로움을 느끼고, 바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송이도의 진정한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송이도의 자연은 그 자체로도 특별하지만, 이런 체험과 장소가 더해지면 여행이 더욱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믿어요.



▲ 이모님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섬의 맛



▲ 식사 준비를 위한 사장님의 들게 사냥 수확물

Q4· 송이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A4· 송이도의 매력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이도의 매력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 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그리고 송이도를 찾아주시는 여행객들 모두가 이 섬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죠. 섬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와 대화하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이 송이도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에 감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큰 기쁨이에요. 이렇듯 사람들과 나누는 만남과 소통이야말로 송이도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송이도는 사계절 내내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이 가득한 섬입니다. 소라, 돌게, 조개 같은 해산물을 잡으며 즐기는 체험은

방문객들에게 단순한 여행을 넘어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죠. 자연 속에서 직접 손으로 잡고 느낄 수 있는 이 체험들은 송이도가 가진 선물 같은 기회입니다. 저에게 송이도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느끼는 맑은 공기와 바람,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송이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매일 소소한 행복과 감사함을 가르쳐주는 제 인생의 선생님 같은 곳입니다.

Q5 • 앞으로 송이도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나요?

A5 - 저는 송이도의 자연 경관이 지금처럼 아름답게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이도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섬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더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마련된다면, 송이도가 더욱 활기찬 섬이 될 거라 믿습니다. 현재 맛등에서의 체험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송이도의 문화와 자연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송이도의 역사와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작은 전시 공간이 생긴다면 섬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겠죠. 또한, 자연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예를 들어 갯벌 생태를 배우거나 해산물을 직접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송이도를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송이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송이도의 맑은 바다와 깨끗한 공기, 그리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이 섬만의 특별한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영광군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이도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섬으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기억과 추억을 선물하는 곳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하안몽돌 해변에서 건네받은 대은희 님의 미소와 작별인사

인터뷰를 마치고 남은 잔잔한 여운

송이도의 따뜻한 햇살만큼이나 환한 미소로 모든 이를 맞아주시는 대은희 님과의 인터뷰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섬을 찾는 누구에게나 밝은 에너지와 따뜻한 환영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대은희 님은 단순히 여행객을 맞이하는 분이 아니라, 송이도의 미소천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섬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성스러운 환대를 아끼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에서 송이도의 따뜻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넘치는 에너지로 송이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여행객들과 함께 나누는 대은희 님 덕분에 섬이 더 활기차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송이도라는 섬이 가진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 섬을 더욱 빛나게 해주시는 대은희 님 같은 분들 덕분에 이곳은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는 특별한 곳으로 남을 거라 확신합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 의지하며 밭농사로
섬 살이 하는 부부
김성기·김정자 주민 부부

01 · 송이도에서 생활하게 되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섬에서 농사를 짓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1 - 저는 송이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상낙월도에서 오셨지만, 부모님은 결혼 후 송이도에 정착하셔서 평생 이곳에서 생활하셨죠. 자연스럽게 저도 송이도를 고향으로 삼고 성장했습니다.

송이도는 저희 가족과 마을 주민들에게 모든 것이 풍족한 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논둑과 밭을 뛰어다니고, 여름이면 친구들과 바다로 나가 물놀이를 즐기며 하루를 보냈죠.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갯벌, 맛등에서는 맛조개, 백합, 동죽을 잡으며 놀기도 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한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18살 때 선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원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죠. 결국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 송이도로 돌아와 농사를 선택했습니다.

송이도는 과거에 논과 밭이 풍부한 섬이었습니다. 논에서는 쌀과 보리를 키웠고, 밭에서는 고구마, 깨, 콩, 고추, 배추, 무 같은 다양한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소를 키워 쟁기로 논을 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일이 손으로 이루어졌지만, 땀 흘린 만큼 자연이 보답해 주었기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논농사는 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500평 정도 되는 밭에서 고추, 마늘, 고구마 같은 작물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예전만큼 많지 않지만, 우리가 직접 키운 작물을 가족과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연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었어요.

Q2 • 섬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행사가 있었는지요?

A2 • 송이도에는 과거에 당산제라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음력 초이틀 새벽,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중요한 제사를 올렸죠. 당산제는 송이도 주민들에게 단순한 제사를 넘어 마을 공동체의 힘과 화합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당산제를 준비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은 쌀을 걷고, 송아지를 잡아 제사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송아지 머리와 고기 일부는 당산에 바치고, 나머지는 "짓"이라고 해서 각 집에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내려온 후에는 풍년굿, 즉 '걸립굿'이 이어졌습니다. 농악대가 집집마다 다니며 지신뽕기를 했고, 때로는 돈을 걷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당굿과 샘굿 같은 굿을 치며 마을 전체가 함께 어우러졌

습니다. 송이도의 당산제는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축복하고 풍작을 기원하는 큰 축제였습니다. 마을 마당에서 굿이 펼쳐지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웃고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굿에 사용된 고깔 꽃은 보통 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력 12월에 손수 물을 들고 말려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에는 저와 제 아내도 함께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마을 공동체의 정성과 단합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송이도에서 당산제를 지낸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전통이 사라졌지만, 당산제를 준비하고 굿을 치며 마을이 하나 되었던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 1991년 법성포초등학교 송이분교장에서의 행사 사진



▲ 저녁 식탁을 위한 부부의 맛둥 동행

Q3 • 송이도에서의 삶이 정말 행복하신가요?

A3 • 네,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즐겁게 살자"고 다짐하며, 작은 순간에도 감사함을 느끼려고 노력해요. 아내는 저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입니다.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자주 웃고 대화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늘 바쁘게 살았지만,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송이도의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이 저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나누는 따뜻한 인사까지, 이 모든 것이 송이도에서의 행복을 더해줍니다. 송이도에서의 삶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깊은 만족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자연과 어우러진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섬의 고요한 환경과 넉넉한 자연은 저희가 느끼는 행복의 큰 원천이에요.

Q4. 송이도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계시지만, 주민으로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도 있을까요?

A4. 몇 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저와 아내가 함께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행정의 변화로 인해 한 집에 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밥 한 그릇을 둘이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접근성입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병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불편합니다. 병원을 가려면 하루 전에 육지로 나가 숙박을 해야 하거나, 배에서 내려 택시를 타야 하는데, 숙박비가 10만 원, 택시 왕복이 5만 원 정도 들어 큰 부담입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버스를 타고 싶어도, 배 시간과 버스 시간이 맞지 않으면 선택지가 없어 결국 큰 돈을 들여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객선에서 내려 바로 병원으로 연결되는 셔틀버스 같은 교통편이 마련된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객선과 버스 요금은 각각 1천 원 정도이니, 현재의 15만 원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덜하겠죠. 물론 지금도 정부에서 섬 주민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의료 접근성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섬에서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잘해주면 더 잘해주라고 안하겠습니까 ㅎㅎ", 지금도 충분히 고맙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Q5. 송이도가 자랑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A5. 송이도는 정말 특별한 섬입니다. 송이도라는 섬이 물 좋고 인심 좋고 그런 동네입니다. 무엇보다 송이도의 맛조개와 백합 같은 특산물도 송이도의 매력을 대표하는 보물 같은 존재예요. 현재 송이도는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태어난 내 고향이 없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 때는 학교도 있고 경찰서도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농사나 어업을 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해서 우리는 없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영원히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송이도 영원하길 바랍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남은 잔잔한 여운

두 분의 사진첩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제 마음은 따뜻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서로를 보듬어 온 두 분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분을 통해 "행복이란 함께할 때 더 빛나고,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소중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특히 끼니를 거르지 않을까 걱정해 주시던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송이도를 방문하면 꼭 따뜻한 밥 한 끼 얻어 먹으러 찾아가겠습니다. 그날은 어머님께서 해 주신 밥 한 숟갈로 두 분의 온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영광 송이도 투어 가이드

전남 섬 여행 날씨확인
섬 여행 전 날씨 확인은
필수겠죠?

기본 현황(2024. 11. 14. 기준)

구분	송이도
가구·인구	70가구·117명
면적·해안선 길이	3.54km ² ·14.65km
주요 관공서	보건진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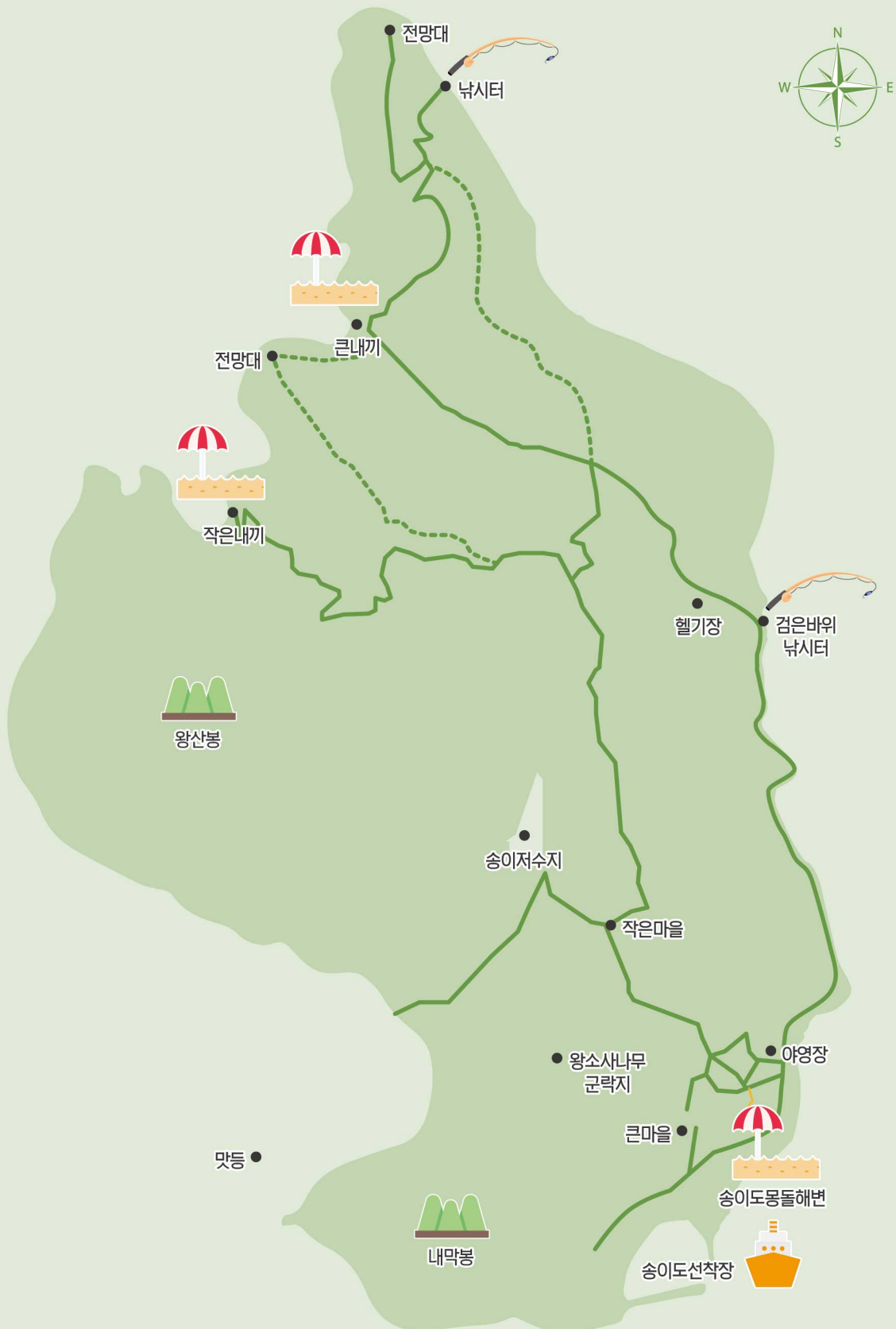
송이도 여객선 운항정보

항 차	항화도 → 송이도		송이도 → 항화도		운항선박
1	09:00	10:40	10:45	12:25	영광 사랑호
2	14:00	15:40	15:45	17:25	
참고사항	· 운항 시간 및 운임 문의 : (유)신진해운 : 061-244-0522 , 항화도 매표소 : 061-353-4277 · 운임 : 성인 1인 8,500~9,300원 편도 기준 · 주소 : - 항화도 선착장 : 전남 영광군 항화로 1 - 송이도항 :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 '22년 4월부터 유류할증료 요율에 따라 운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운임은 출발 전 문의해 주세요. · 시간표는 기상악화 및 선사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으니 이용전 문의바랍니다. · 항화도-송이도 여객선 시간표는 물 때에 따라 매일 변경되니 QR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2024년 12월 항화도 <-> 송이도 시간표 바로가기

송이도 숙박·식당 정보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친환경가족펜션	송이길 47-10	010-4620-0086
송이섬펜션*	송이길 24-25	010-8756-9114
송각민박	송이길 24-19	010-9450-1833
고향민박*	송이길 37	010-4558-6296
흰몽돌 송비치하우스	송이길 24-43	010-3872-0518
송이도몽돌민박*	송이길 33-4	061-352-3338

* 송이도에는 숙박과 식사가 동시에 가능한 곳이 있으니, 방문전 확인 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송이도에 가면,
이곳은
꼭 만나야 해!

송이도의 몽돌 해변, 왕소사나무 군락지, 팽나무 고목, 그리고 큰내끼 해변. 이 특별한 장소들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송이도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들입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여행을 넘어 가슴 깊이 남는 특별한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송이도의 특별한 장소들에서,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 누군가의 소망이 쌓인 하얀 몽돌해변의 돌탑

Spot #1

자연이 남긴 발자취 : 하얀 몽돌해변

송이도 남쪽에 자리한 하얀 몽돌해변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자연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닷물이 조약돌을 매끄럽게 다듬으며, 서로 부딪쳐 내는 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약 1km에 걸쳐 이어진 몽돌해변을 걸으면 발걸음마다 돌들이 부드럽게 부딪치며 내는 소리가 귀를 간질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음악처럼 들려오죠.

하얀 몽돌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이곳만의 특별함을 더합니다. 발끝에서 시작되는 고요한 돌맹이의 속삭임과 함께하는 하얀 몽돌해변은 송이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해질녘 풍경이 없다면, 이 해변의 고요한 아름다움은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 오랜 세월을 간직한 왕소사나무 군락지의 입구

Spot #2

자연이 숨 쉬는 숲 : 왕소사나무 군락지

섬의 중심부에 자리한 작은 녹색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왕소사나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며 송이도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군락지는 단순한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넘어, 자연이 만들어낸 생명 공간이자 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세요.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과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는 그 자체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순간을 선사합니다. 왕소사나무들의 굳건한 자태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생명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자연 속에서 차분히 걸음을 옮기며 나무들과 함께 숨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팽나무 고목

Spot #3

섬이 품은 이야기 : 팽나무 고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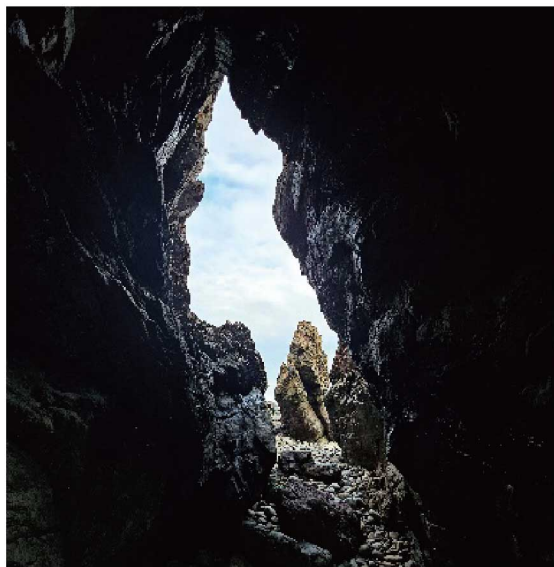
송이도 마을에 자리한 팽나무 고목은 마치 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송이도의 시간과 역사를 고스란히 품어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생명의 기운을 잃은 듯 보이지만, 그 거대한 몸체와 주름진 나무줄기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팽나무는 단순히 오래된 나무가 아니라 섬 주민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무 아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힘든 순간을 위로받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팽나무 고목 아래 서서 그 자리에 담긴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나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자태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팽나무는 비록 생명은 멈췄지만, 섬과 주민들에게 여전히 소중한 상징이자 추억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Spot #4

동굴이 품은 바다 : 큰내끼 해변

이곳은 자연이 만든 동굴과 드넓은 바다가 어우러져 송이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동굴은 오랜 세월 동안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자연의 조각품 같고, 그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면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동굴 안의 고요함과 바깥의 웅장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이곳은 마치 시간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의 리듬이 귀를 간질이는 순간, 자연과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큰내끼 해변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이로움과 평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 큰내끼 동굴에서 펼쳐진 그림 같은 풍경

송이도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진정한 매력을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하얀 몽돌해변, 왕소사나무 군락지, 팽나무 고목, 그리고 큰내끼 해변 같은 특별한 장소들을 가보신 적 있나요? 이곳에서 자연과 시간을 초월한 감동을 경험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맛등의 보물이 가득 담긴 바구니

송이도의 갯벌, 맛등은 그저 갯벌이 아닙니다. 물이 빠질 때 드러나는 신비로운 바다 속 세상, 맛등은 자연이 만들어낸 살아 있는 놀이터입니다. 이곳에서는 맛조개, 백합, 동죽 등 다양한 해산물을 직접 채취하며 자연과 가장 가까이 교감할 수 있습니다. 조개를 잡는 짜릿한 순간과 갯벌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로 송이도는 일상의 피로를 씻어줄 힐링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맛등 체험, 준비와 주의사항

1 물때 확인은 필수!

맛등 체험은 썰물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립해양조사원이나 물때 확인 사이트를 통해 송이도의 물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과 갯벌 체험이 가능한 시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한 복장과 도구 준비하기

갯벌은 예상치 못하게 미끄러울 수 있고, 발이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장화나 아쿠아슈즈 같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준비하고, 손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도 꼭 챙기세요. 맛조개를 잡기 위한 소금이나 작은 도구를 가져가는 것도 유용합니다.

3 현지 어민과 함께라면 두 배로 즐거워요

갯벌 체험에 처음 도전하거나 생태계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현지 어민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민은 조개 채취 요령은 물론 송이도의 자연 생태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4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가짐

갯벌 체험은 자연이 주는 선물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체험 후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고, 조개를 무분별하게 채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갯벌 체험을 계획하기 전에 몇 가지를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면 더 즐겁고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맛등은 송각어촌계 마을어장으로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맛등에서 만나는 자연의 보물들을 알아볼까요?



▲ 통통하게 살찐 동죽

#01

작지만 맛있는 감칠맛의 대명사 **동죽**

작고 동그란 동죽은 국물 요리에 사용하면 진한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동죽을 갯벌에서 찾는 일은 비교적 쉽고 간단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체험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02

바다에서 온 고귀한 여왕 **백합**

'조개의 여왕'이라 불리는 백합은 그 고운 빛깔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미식가들에게 사랑받는 해산물입니다.

송이도 맛등의 갯벌 속에서 백합을 찾는 건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백합의 단단한 껍질을 발견하는 순간, 자연이 준 선물을 직접 만난다는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손바닥만 한 크기의 백합



▲ 손 안에 담긴 맛조개의 싱그러움

#03

맛조개의 숨바꼭질

송이도의 맛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맛조개입니다. 길쭉한 모양과 독특한 맛으로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해산물입니다. 송이도의 맛조개는 전문 도구를 만들어야 하지만 잡는 순간은 마치 자연과 숨바꼭질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맛등 체험은 바다와 갯벌,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조개를 잡으며 웃고 떠들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마음은 한층 여유로워집니다. 갯벌 위에서 노을이 물드는 순간,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이어진 광경은 여행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송이도라는 섬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당신의 두 손으로 갯벌 속 보물을 찾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섬코디네이터, 가고싶고×살고싶은 섬을 잇다.

첫째날은 경남 살고 싶은 섬 통영 두미도에서 전남과 경남의 주요 섬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남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섬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사업을 설명했어요. 워크숍이 끝난 이후에는 영호남 섬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과 소통을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 경남 살고 싶은 섬 통영 두미도 워크숍

셋째날은 경남 남해의 중현회룡마을을 찾아, 오롯이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의 마을 불거리 및 특산물 홍보 전략을 배울 수 있었어요.



▲ 남해 남해 중현회룡마을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이해런님 소식

가고 싶은 섬에서 활동하는 전남 섬코디네이터들이 지난 11월 13일 ~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경남을 다녀왔어요.

둘째날은 경남 통영의 동피랑과 서피랑을 방문해 주민주도 마을경관 조성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통영 도보 골목투어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서피랑의 서파루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관련 이야기와 섬에 접목할 수 있는 타지역 사례도 함께 공유했어요.



▲ 통영 동피랑 골목투어



▲ 웃음 가득 코디네이터 워크숍 시간

이번 견학을 통해 전남 섬 여행에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섬 코디네이터들은 개인의 역량을 확실히 강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김성경님 소식

바다 위의 정원, 손죽도 주민들이 찾은 발전의 힌트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여수 손죽도 주민 54명이 제주도로 선진사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손죽도 사업을 마무리하며, 주민들이 더욱 화합하고 섬의 미래를 고민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 제주 가시리 문화센터

아방어멍잔치마을에서는 자원을 활용한 축제 개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마을 법인과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다양한 관광 편의시설 운영 사례를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가시리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체 식당 운영 현황 및 관광활성화를 통해 공동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등 성공적인 공동체 경제를 지속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 아방어멍잔치마을 사례강의



▲ 가시리마을 사례강의

주민들은 가시리 마을의 사례 강의를 들으며 그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접했고, 손죽도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활발히 질문하며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오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죠. 또, 손죽도의 굿즈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도 진행하며 색다른 아이디어를 얻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하는 덕분에, 가고 싶은 섬 여수 손죽도는 점점 더 살기 좋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바다 위의 정원' 손죽도가 만들어갈 멋진 변화를 기대해 주세요!



2024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

2024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